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안건(제7-6호)

---

#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사업 가칭(BEAR Project) 추진 방안

---

2010. 10. 25

## 교육과학기술부

◇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대표부 재개설('10.1월)을 계기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UNESC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제7차 국제개발협력위원회

보고안건(제7-6호)

# 아프리카 저개발국 대상 UNESCO 신탁기금사업 가칭(BEAR Project) 추진 방안

2010. 10. 25

## 교육과학기술부

◇ 이 보고서는 유네스코 대표부 재개설('10.1월)을 계기로 아프리카 남부 지역에 대한 직업교육훈련 수요를 반영하여 UNESCO에 신탁기금을 공여하는 방식을 통해 교육분야의 협력을 강화하고, 저개발국에 대한 지원을 확대함으로써 국제사회에서의 원조국으로서의 위상을 제고하는 방안을 담고 있음



# 차 례

I. 추진배경 .....	1
II. 사업 개요 .....	2
III. 평가 및 기대효과 .....	6
IV. 향후 일정 .....	7

## <참 고>

1.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세부 내역 .....	8
2. 아프리카 역내 경제공동체 현황 .....	9
3. 아프리카 SADC의 교육지표 현황 .....	10
4. UNESCO 개요 .....	11
5. UNESCO UNITWIN 개요 .....	12



## I. 추진 배경

- 아프리카는 풍부한 자원\*과 높은 성장잠재력\*\*을 보유하여 경제·산업적 측면에서 뿐만 아니라 인적자원 개발 측면에서 전략적 중요성이 매우 큼

\* 석유(세계 매장량의 10%), 천연가스(8%) 및 다양한 광물자원(백금, 우라늄 등)

\*\* 유럽인구는 '50년에 6천만명이 감소할 전망이나, 아프리카 인구는 9억명이 증가하여 현재(10억명)의 두배가 될 것으로 예상

- 특히, 지구상의 최빈국인 아프리카 국가들이 빈곤으로부터 벗어나고, 지속적인 사회 경제적 발전을 위해서는 지식과 기술의 체계적인 습득이 절실

- 최근 들어, 한국의 G20 의장국, 유네스코 가입 60주년 및 독립대표부 재개설\* 등을 계기로 국제사회에 대한 책무성도 높아져야 할 시기

\* 경제위기로 '99년 폐쇄했던 유네스코 한국대표부를 12년만에 재개설('10.1)

- 한국의 ODA/GNI 비율은 **0.1% 수준\***으로 OECD 회원국 중 최하위이며, OECD DAC 평균에도 크게 미달

\* OECD DAC 평균('09년) 0.31%, 미국 0.20%, 일본 0.18%, 영국 0.52%이며, UN은 '15년까지 0.7% 수준으로 확대할 것을 권고

- 특히, 유네스코 사무국이 우리 정부에 남아프리카지역국가를 대상으로 한 직업기술교육 개발협력 지원을 요청('10.4)

- 한국형 개발협력 ODA 모델의 최적사업으로 교육(직업훈련) 분야가 선정(KOICA, '10.3)됨에 따라, 남아프리카지역국가들에 적합한 직업교육훈련 모델을 제시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

## II. 사업 개요

- 사업명 : 아프리카 르네상스를 위한 교육 지원사업(BEAR\* Project)  
\*Better Education for Africa Renaissance
- 수혜국 : 남아프리카지역국가(SADC) 중 5개국 선정
- 지원국 : 대한민국
- 지원기간 : 5년(2011~2015)
- 지원예산 : 매년 성과평가를 통하여 5년간 지원  
\*11년도 예산에 UNESCO저개발국교육발전신탁기금 100만USD 반영 추진
- 지원목적 : 남아프리카지역국가에 대한 중등단계 직업  
기술교육훈련을 지원

□ (기본 방향) 2015년까지 “모든 사람을 위한 교육(EFA\*)”을 실현하기 위한 유네스코의 목표달성을 지원

- 유아교육 및 보육기회 확대, 무상 의무교육 제공, 직업기술 및 성인교육 증진 등에 역점

□ (지원분야 : 직업기술교육) 직업기술교육의 가장 큰 목표인 국가 구성원들의 고용가능기술(Employability skills)을 지원

- 유네스코는 초등교육의 보편화가 이루어지면서 일반교육 뿐 아니라 중등단계의 직업기술교육의 확대\*에 역점을 두고 있음

\* 지난해 UNESCO 총회에서 직업기술교육 6개년 발전전략(2010-2015) 채택

- 우리나라의 교육이 경제성장에 기여한 정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나고 (World Bank), PISA\*, TIMSS\*\* 등 국제학업성취도 평가에서 우수한 성취를 거두면서 우리의 교육발전 경험 전수에 대한 수요가 증가

\* PISA : Programme for International Student Assessment (OECD 만15세 대상 학업성취도 국제비교 연구)

\*\* TIMSS : Trends in International Mathematics and Science Study (만9세와 만13세 수학·과학 성취도 비교연구)

□ (지원대상) 남아프리카지역 경제협력공동체(SADC\*) 15개 국가 중 5개 국가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

\* Southern Africa Development Community (본부는 보츠와나 가보르네에 위치. 앙골라, 레소토, 말라위, 모잠비크, 스와질랜드, 탄자니아, 잠비아, 짐바브웨, 나미비아, 남아공, 모리셔스, 세이셸, 콩고, 마다가스카르 등 15개 국가)

○ (선정기준) 정치적으로 안정되어 있고, 대외 경제활동이 활발하며, 영어권으로 ODA 추진에 적합한 국가 위주로 선정

● 수혜국 선정시 고려사항

- 초등교육 이수율 수준 (기본 수학능력 확인)
- 정치적 안정성 (사업추진 곤란상황 방지)
- 수혜국의 의지
- 영어 사용권
- 한국기업 활동성 / 자원외교 가능성 등

□ (추진전략) 5개국에 대한 집중 지원으로 직업교육에 대한 기반을 마련한 후 아프리카 여타 국가로 확대

○ (1단계) 5개국에 대한 전략적 지원을 통해 한국형 직업교육 모델 개발

- SADC 국가들의 가장 시급한 과제로 요구된 직업교육 교원 양성, 교육과정/교재개발에 집중 지원(SADC 교육장관회의결과 권고, '10.3)

\* 한국직업교육 전문가에 의한 컨설팅, 직업교육 교원양성 및 훈련, 한국 직업교육 프로그램의 현지화, 원격교육을 통한 직업교육, 행정비용 등 (☞ 세부산출내역 별첨1 참고)

○ (2단계) 유네스코를 통한 한국형 직업교육 최적모델의 확산 차원에서 SADC내 기타 국가 및 아프리카 전체로 확대('16~'20)

- 일정기간 직업기술교육 관련 정책자문(Policy Support)\*과 역량 개발(Capacity Building)\*\*에 집중하고, 추후 인프라 구축\*\*\* 추진

- \* UNESCO-수혜국-한국 정부간 정책검토(Policy review) 및 컨설팅
- \*\* 수혜국 직업교육정책 관계자, 교육행정가 초청 정책 연수, 한국-수혜국간 교재개발, 직업교육교사 전문훈련 분야별 연수 등
- \*\*\* KOICA / World Bank / ADB 및 민간기업 후원 등을 통해 양자(Bilateral) 지원방식의 직업교육훈련센터 구축, 장비 및 기자재 지원 등

□ (추진체제) 사업의 원활한 수행 및 효과 제고를 위하여 유기적인 협력체제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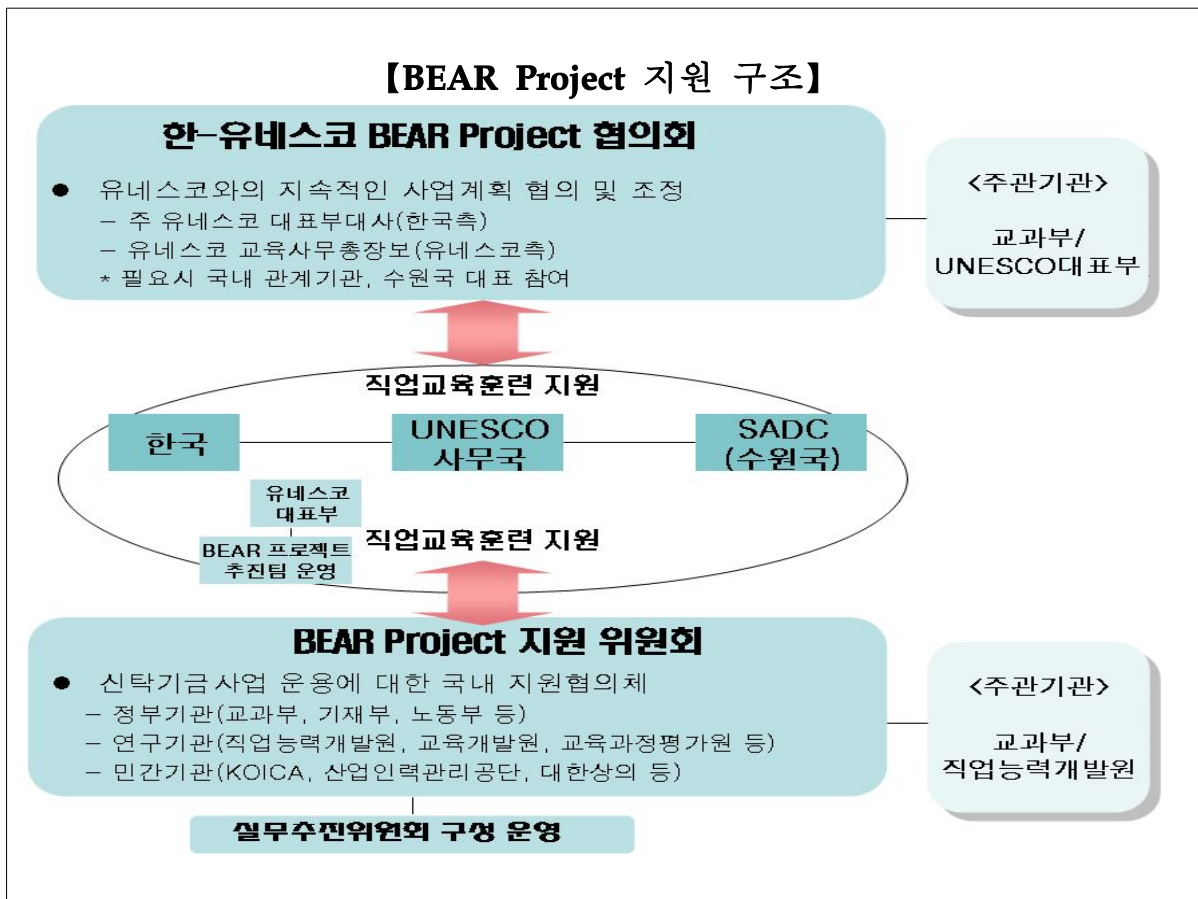
- (국내 지원체제) 교과부를 중심으로 관계부처, 직업능력개발원, 산업인력관리공단, KOICA, 대한상공회의소, 현지 진출 기업 및 대학 등이 참여하는 (가칭) 『BEAR프로젝트 지원위원회』 를 구성·운영

직업능력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02년부터 아태지역 중심으로 국가 직업교육훈련 DB 구축 등 국가별 지원을 확대</li> <li>· '09년부터는 아프리카지역 6개국 직업교육훈련 전문가를 초청하여 성공사례 전파 중</li> </ul>
교육개발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10년 아프리카 교육장관회의 협의회(ADEA)와 MOU를 체결하여 교류협력사업 추진 중</li> <li>· SADC 본부가 위치한 보츠와나에서도 한국의 교육발전 모델 전수를 희망('10.9)</li> </ul>
교육과정평가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최근 에디오피아 교육부, 케냐 교육연구원 등 아프리카 일부 국가의 교육관련 기관대상 연수를 실시</li> </ul>
교육학술정보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세계은행과 공동으로 아프리카지역 이러닝 회의, 고위정책결정자 포럼개최, 교원연수 등 아프리카지역 교육정보화 사업 추진 중</li> </ul>
한동대학교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UNESCO UNITWIN 주관대학으로 아프리카 국가의 인재양성 및 기업가정신 교육을 현지와 국내에서 지속적으로 추진</li> </ul>

- (역할) BEAR프로젝트의 성과를 최대화하기 위하여 관계 부처, 기관의 국제협력 사업들을 상호 연계하고, 협의 조정

- \* 예시) 교과부의 경우 외국인유학생 초청사업인 GKS 장학생의 일부를 BEAR프로젝트 수혜국의 직업교육분야에 우선 배정

- (실무추진단) 한국직업능력개발원을 중심으로 관계기관 전문가가 참여하는 실무추진단을 구성·운영
- (한-유네스코 협의회) 유네스코와의 지속적인 사업 계획 협의 및 사업 조정 등을 위하여 (가칭) 『한-유네스코 BEAR프로젝트 협의회』 구성·운영
- (구성 및 역할) 주유네스코대표부대사(우리측), 유네스코 교육사무총장보(유네스코측)간 고위협의체 성격으로 운영 하되, 필요시 국내 관계기관 및 수원국 대표 등이 참여
- (유네스코 내 추진팀) 유네스코 사무국 내에 BEAR 프로젝트 추진팀을 구성·운영



### Ⅲ. 평가 및 기대효과

- 우리나라는 對아프리카와의 협력관계에서 **후발주자\***로서의 어려움을 극복해야 할 **위기요인\***과 **기회요인\*\***이 있음

\* 중국, 일본, 미국, EU 등 주요 국가들은 막대한 자금력과 전통적 우호 관계를 바탕으로 밀접한 협력 관계를 旣형성

\*\* 아프리카 국가들이 우리나라의 **발전모델**을 전수받고자 하는 수요 급증

- 특히, 우리나라가 발전 단계에서 이미 성공을 경험한 직업 기술교육 **훈련 모델**을 UNESCO 채널을 통해 아프리카에 현지화 함으로써 **국격 신장**에 기여

- **최빈곤국\***에서 단기간에 성공적인 국가발전을 이룬 경험과 노하우로 아프리카의 상황에 적합한 차별화된 발전 모델을 제시하여 **국가 이미지 제고**

\* 60년대 우리나라 여건은 가나, 콩고, 케냐 등 아프리카 국가들과 유사 하였으며, 우리의 전후복구경험도 아프리카 국가의 내전이후 경제복구에 유용한 사례

- **특화된 직업기술교육 프로그램**을 소수 국가에 집중 지원 함으로써 성과파급력을 높이고 **한국형 개발원조 프로그램** 창출 및 **관련인재 양성** 가능

- 아프리카 지역에 **한국교육 진출의 교두보 확보**

- UNESCO와 공동 추진으로 사업의 가시성 제고 및 성과 극대화

⇒ 아프리카 지역으로부터 수요가 큰 **직업교육훈련 프로그램**을 체계적으로 보급함으로써 경제협력뿐만 아니라 **교육분야**에서의 **협력역량을 집중할 필요**

## IV. 향후 일정

◇ 세부 실천계획 수립 후 아프리카 현지 실사 등을 거쳐 지원대상 국가를 선정하고, '11년 초에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약정 체결 추진

□ 세부적인 **Action Plan** 수립을 위해 UNESCO 대표부를 통해 UNESCO 사무국과 지속 협의(계속)

※ 현재, 직능원, 교육개발원, 교육학술정보원 등 유관기관이 참여하여 BEAR Project 구체화를 위한 TF 운영 중

□ 아프리카 실사단 구성 및 현지 조사('10.11-12)

○ UNESCO와 더불어 타당성 조사 및 세부 실행계획 수립

□ 한-유네스코 신탁기금 약정 체결 (2011년초)

○ UNESCO-한국정부 간 MoU 체결

□ 유네스코 집행이사회(2011.4월), 총회(2011.10월) 결의안 제출을 통해 유네스코 정규프로그램으로서 지지 확보

□ 사업 시행 및 모니터링/외부평가를 통한 피드백('11~'14)

□ 한국형 직업기술교육 모델 아프리카 전역 확산전략 모색('15년 이후)

# 참고 1

## 유네스코 신탁기금사업 세부 내역

(단위:백만원)

구 분	연도별 소요 예산				
	2011	2012	2013	2014	2015
<b>합 계</b>	<b>1522</b>	<b>2400</b>	<b>2400</b>	<b>2400</b>	<b>2400</b>
○ 사업기획·조정 및 행정지원	150	150	150	150	150
- 한-유네스코 협의체 운영	15	15	15	15	15
- 유네스코 내 프로젝트팀 구성운영	50	50	50	50	50
- 모니터링, 중간평가, 최종평가	15	15	15	15	15
- 제반 행정비용	70	70	70	70	70
○ 직업교육 정책 및 프로그램 컨설팅	100	100	100	100	100
- 한국전문가의 현지 파견 컨설팅	60	60	60	60	60
- 수원국 전문가의 한국 초청 컨설팅	40	40	40	40	40
○ 직업교원 연수 훈련	100	100	100	100	100
- 국내 마이스터고 등 전문가의 현지 파견을 통한 연수 훈련	50	50	50	50	50
- 수원국 교원의 한국 초청을 통한 연수 훈련	50	50	50	50	50
○ 한국 우수 직업교육프로그램의 현지화 지원	572	1450	1450	1450	1450
- 현지화를 위한 프로그램 개발 (번역 등)	72	100			
- 현지화를 위한 프로그램 연수	50	100	50	50	50
- 프로그램의 현지 적용	450	1250	1400	1400	1400
○ 직업교육훈련 원격교육 지원	300	300	300	300	300
- 원격교육 프로그램 개발	200	100			
- 원격교육 프로그램 연수	100	200	100	100	
- 프로그램 시범적용 및 확산			200	200	300
○ 실험실습 기자재 지원	300	300	300	300	300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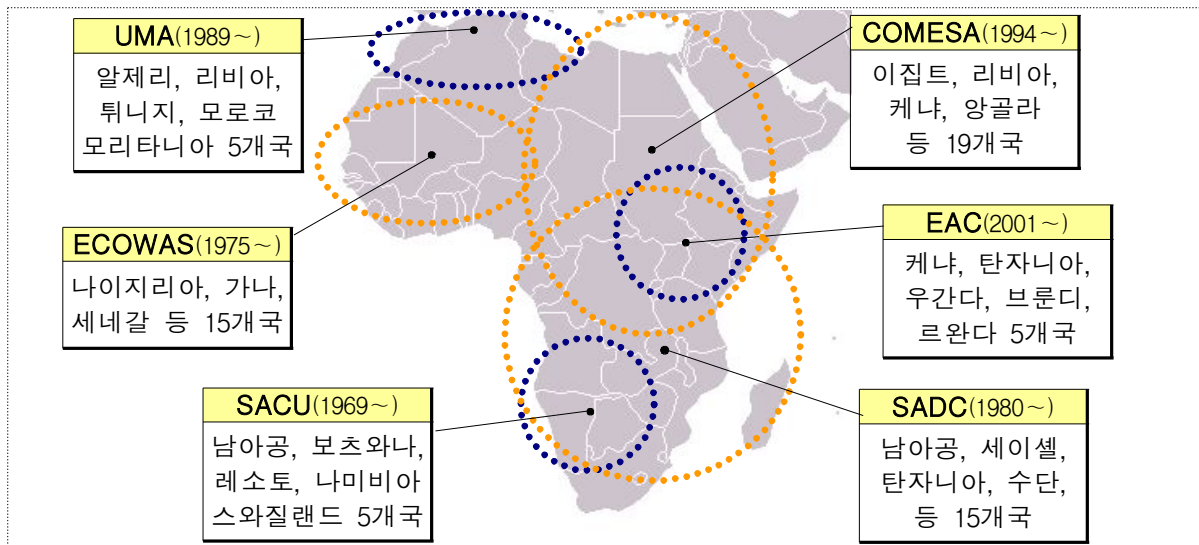
※ 상기 사업비 세부내역은 유네스코와 협의를 통해 MOU 체결시 조정 가능

## 참고 2

## 아프리카 역내 경제공동체 현황

- 서로 다른 언어·문화·지리적 배경을 가진 **53개국**으로 이루어진 아프리카는 경제적 낙후, 정치적 불안 문제 등에 대한 공동대응을 위해 다양한 역내 경제공동체를 형성

### < 아프리카 주요 역내 경제공동체 개요 >



구 분*	면적(천 km <sup>2</sup> )	인구(천명)	GDP(백만\$)	1인당GDP(\$)	가입국수
UMA	5,782	84,185	276	3,032	5
ECOWAS	5,112	251,646	184	731	15
SACU	2,693	51,055	276	5,402	5
COMESA	12,873	406,102	283	697	19
EAC	1,817	124,858	61	488	5
SADC	9,880	233,944	379	1,618	15

\* UMA(아랍-마그레브 동맹), ECOWAS(서아프리카제국경제공동체), SACU(남아프리카관세동맹), COMESA(동남아프리카공동시장), EAC(동아프리카공동체), SADC(남아프리카개발공동체) 등

### 참고 3

### 아프리카 SADC의 교육지표 현황

Country	NER-P (초등 등록율)	GGR-P (초등 이수율)	GER-LS (중등 등록률)	Literacy-Y (성인 문해율)	교육지표 소계	경제 규모	사업 용이성	개 방성	인 프라	부 패 정 도	경 제 지 표 소 계	총점
South Africa	87.0	77.0	99.3	96.8	90.0	100	100	81.6	93.3	96.2	94.2	184.3
Botswana	87.2	100	91.1	95.1	93.4	62.7	96.2	89.5	90.0	100.	87.7	181.0
Namibia	88.1	77.0	82.4	92.9	85.1	49	94.2	68.4	100.	94.3	81.2	166.3
Zambia	91.7	100	53.9	74.8	80.1	64.7	86.5	94.7	33.3	69.8	69.8	149.9
Tanzania	95.5	83.0	55.5	77.5	77.9	74.5	67.3	47.4	26.7	43.4	51.9	129.7
Madagascar	99.6	50.0	33.2	70.2	63.3	52.9	63.5	76.3	40.0	75.5	61.6	124.9
Angola			65.8	72.9	69.3	88.2	26.9	86.8		18.9	44.2	113.5
Malawi	88.9	26.9	47.8	85.7	62.3	35.3	65.4	28.9	23.3	83.0	47.2	109.5
Mozambique	75.4	33.0	21.9	69.9	50.1	54.9	61.5	73.7	16.7	37.7	48.9	99.0
Seychelles	94.0	98.0	100	99.1	97.8						0.0	97.8
Mauritius	90.7	82.4	98.0	96.4	91.9						0.0	91.9
Sudan	39.0	39.0	45.0	85.2	52.1	86.3	50			3.8	28.0	80.1
DRCongo		33.0	45.0	65.3	47.8	68.8	13.8	44.2		25.1	30.4	78.1
Zimbabwe	89.9	62.0	59.4	98.9	77.5						0.0	77.5
Swaziland	80.3	74.0	58.3	93.2	76.5						0.0	76.5

## □ 연혁

- '45. 11, 연합국 교육장관회의에서 'UNESCO 헌장' 채택
- '46. 11, 20개국 비준을 얻어 UNESCO 헌장이 발효됨에 따라 설립
  - \* 한국은 UNESCO 제5차 총회('50.6, 플로렌스)시 55번째 회원국으로 가입

## □ 기능 및 임무

- 교육·과학·문화분야에서 국가간 협력 촉진 및 평화 안보에 기여

## □ 조직구성

- 총회 (General Conference)
  - 193개 회원국으로 구성
  - 2년에 1회(홀수년 10월) 개최되는 UNESCO의 최고정책 결정기관
- 집행위원회 (Executive Board)
  - 총회에 의해 선출된 58개국 대표로 구성(4년 임기)
  - 매년 2회 개최, 사업 및 예산 등 검토후 총회에 의결사항 상정
  - \* 우리나라는 제34차 총회('07.10)시 집행이사국으로 선출
- 사무국 (Secretariat)
  - 사무총장 : Irina Bokova(불가리아, '09년 선출, 임기 4년)
  - 직원수(2,100명)

## □ 재정

- '10~'11 정규예산 : 653백만불
  - 각 회원국의 분담율은 총회에서 승인되며, 동 분담율은 유엔총회에서 채택된 분담율을 기초로 설정
- 비정규예산 : 463백만불
  - 공여기관과 협정을 통해 공여기관이 위임한 사업에 사용되는 신탁기금과공여기관이 조건없이 기여한 자발적 기여금으로 구성
  - \* 우리나라는 매년 약 80억원 분담(분담율 2.260%, 세계 11위)

### □ 사업개요

- UNESCO UNITWIN은 ‘University Twinning and Networking’ 약자로 복수의 대학 및 고등교육 기관이 연합하여 추진하는 협력사업임

### □ 추진현황

- 고등교육기관의 교류와 협력을 통한 역량강화 및 UNESCO의 이상 실현을 위해 1992년 UNESCO 제26차 총회에서 채택
- 2010.6월 현재 전세계 66개의 UNITWIN network 주관대학이 지정되어 있음
  - 미국: Boston대, Purdue대, Oregon대
  - 캐나다: Quebec대, Laval대
  - 일본: 교토대, 와세다대, 히로시마대 등
  - 한국: 한동대

### □ 기대효과

- UNITWIN사업은 UNESCO의 전반적 활동분야에서 대학간 연계와 협력을 통한 연구, 훈련, 프로그램 개발 향상에 성과를 시현